

봄 내음 머금은 진분홍 철쭉의 향연

철쭉이 아름다운 사찰 - ④ 전주 감천사

**붉은바위가에
잡고 온 암소를 놓게 하시고
저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향가인 <헌화가>에 나오는 이야기다. 신라 성덕왕 재위 무렵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는 순정공이 부인 수로가 천길 절벽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에 반해 누가 꽃을 꺾어 줄 사람이 있는가 물어본다. 모두 망설이자 마침 지나가던 견우 노인이 이 노래를 부르며 수로부인의 허락을 기다려 꽃을 꺾어 파온다. 이 꽃이 바로 철쭉이다.

이 노래에는 절제기인인 수로가 초라한 늙은이에 게서 꽃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까봐 걱정하는 노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전국의 산에서 돌아가며 철쭉 잔치가 펼쳐진다.

5월산의 주인공은 단연코 철쭉이다. 봄의 여왕 벚꽃이 꽃비 흠날리며 퇴장한 늦은 봄. 벚꽃처럼 잎 버리고 홀로피지 않고 장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푸른 잎 사이 수줍게 피어나 붉은 자태 뽐내는 철쭉의 계절이 다가온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는 이즈음의 주인공은 철쭉이 제격이다. 붉은 꽃잎이 눈부신 철쭉은 늦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길목에 절정을 이룬다. 예전에는 철쭉은 산에나 가야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곳곳에 쉽게 붉은 빛을 토해내는 철쭉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철쭉은 균락을 이루어야 더욱 빛을 발한다. 전주 감천사의 철쭉이 그러하다.

감천사는 아득막한 언덕길을 올라서면 붉은 철쭉을 만날 수 있다. 주차장 주변부터 주법당인 극락보전을 둘러싸고 온통 철쭉 잔치다. 죽히 잡아 수백그루는 되어 보인다. 그리고 보니 극락보전 단청도 철쭉을 닮아 보인다.

전주의 팔복동 공단을 수호하는 호법신장처럼 자리잡은 감천사는 100여년 짙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해인사 2대강주를 지내신 명봉 스님이 창건했다. 창건 당시는 명봉 스님이 주석하면서 자신의 공부를 위해 지은 작은 인법당이었다. 명봉 스님은 우리나라 근대 강맥의 두 산맥인 진흥 스님과 한영 스님 중 한영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 받은 대강맥이었다.

청담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명봉 스님을 해인사 강주로 모시기 위해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중앙포교사를 지내기도 했

으며 1966년 역경위원으로 당시 중정 효봉선사로부터 위촉받기도 했다. 1973년 선학원에 등록하라는 스님의 말씀에 따라 선학원 사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학원에 등록할 때의 이름인 보승선원이라는 명칭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현주지 혼재 스님과 남원 승려사 경원 스님에 따르면 동학사서 공부하던 중 명봉 스님이 감천사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6명의 스님이 무작정 감천사를 찾아 능엄경, 원각경, 화엄경 등의 경전을 공부했다. 강의 하실 때는 경전이나 노트도 없이 어느 경전이든 줄줄 외워서 강의를 했다고 한다.

명봉 스님은 경전 공부를 하면서도 참선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항상 가르쳤다. 경전을 아무리 줄줄 외워도 참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물론 명봉 스님 자신도 쇠방망이로 머리를 때려가면서 참선을 했다고 한다.

명봉 스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한 스님들은 절 살림이 어려워 전주 정혜사, 익산 해봉원등 인근 사찰서

해인사 2대 강주 명봉 스님이 창건

철저한 참선 수행 가풍 이어져

법당·요사채 뿐인 소박한 절

김치, 쌀, 양초를 탁발해 가며 공부를 이어왔다. 스님들이 직접 탁발 하면서 공부 했다.

경원 스님은 “그 당시는 참 어려웠지만 모두 힘든 지도 모르고 공부했죠. 아마 신심이 없었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기였을겁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명봉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곳 감천사는 내가 열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께서 일절 시주 받지 말고 뽕나무라도 심고 그것을 거울삼아 힘들더라도 수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유시를 남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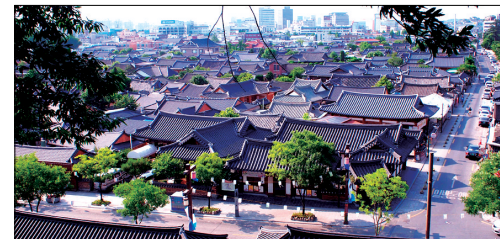
1973년 세납 88세, 법납 72세로 입적한 명봉 스님의 부도는 감천사 철쭉동산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명봉 스님의 유시를 받들어 현주지 혼재 스님은 절 앞마당에 유실수를 심고 법당주변에는 온통 철쭉나무를 심어 도량을 장엄했고 여불 소



진분홍빛 비단이불을 깔아놓은 듯한 철쭉이 극락보전 주위를 에워싸며 청정도량을 천연색으로 수놓고 있다.

여행수첩

<주변 가볼만한 곳>



▶ **한옥마을** /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들어와 전주성벽을 철거하고 중앙의 상권을 독점하자 한국인들이 1930년경 이에 대한 반발로 전주시 교동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에는 고풍 한옥마을과 화산동의 양옥형 식인 선교사촌, 교회, 일본식 집들이 집단 형성돼 묘한 도시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옥마을 입구에 전통성당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신 경기전이 마주하고 있어 한옥과 양식건축물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 **경기전** / 전주에 있던 어용전을 가리키는데 이는 조선 태종 10년(1410)에 완산·계림·평양에 건물을 짓고 태조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세종 24

년(1442)부터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 불렀다고 한다. 선조 31년(1598)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것을 광해군 6년(1614)에 고쳐 지었다. 건물 구성은 중심 건물과 부속건물, 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제사 기능을 지닌 건축물의 특성을 잘 따르고 있다. 지금 이곳에 모신 태조의 영정(초상화)은 세종 24년(1442)에 그린 것을 고종 9년(1872)에 다시 고쳐 그린 것이다.

<맛집>

전주는 맛의 고장이다.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이 유명하다. 비빔밥으로 유명한 식당이 여러 곳 있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편이다. 최근에는 지역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자는 로컬푸드 운동이 일어나 로컬푸드 전문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완주 로컬푸드(www.hilocalfood.com) 사이트에 들어가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자세한 식당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중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 비비정(063-291-8609), 청와삼대(063-223-0990), 전주 풍남정(063-285-7782), 콩나물국밥 영이집(063-287-6980), 성미당(063-287-8800), 한국관(063-272-9229) 등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전주의 향토음식인 비빔밥과 한정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감천사는 1994년 개축한 17평 규모의 극락보전이 주전각이다.



명봉 스님 부도탑



작은 삼존불이 인상적인 극락보전 내부

전주 감천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범석

世界佛敎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계속적으로 서류 접수하여 심사 후 6차 금강계단 (일시 추후결정) 지속적으로 봉행함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며 먹물 옷을 입어도 자신을 잃어버린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크게 진행되고 있으며 20개국 종정 및 승왕들의 친필 싸인 서명을 확보한 정통 세계불교 법왕청입니다. 고승 및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흙탕속의 품수체계와 품수를 내세워 후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확하고 걸른다는 측면에서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하며 일체의비용이 없습니다. 이제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의 증명 법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원장 SANGGALAJA 대승정 목탁 합장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이유를 불문하고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명칭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게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